독립예술영화 거점 '전주 독립영화의 집' 첫 삽

시, 착공식 개최… 2026년 완공 목표 총사업비 720억원 투입 조성

전주시 고사동 영화의거리에 내년까지 대한민국 독립예술영화의 거점이자 영화 도시 전주의 심장부가 될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완성된다.

시는 24일 독립영화의 집 사업부지(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독립영화협회 관계자,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독립영화의 집 착공식'을 개최했다.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착공식은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은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국내외 독립영화 창작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완공과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주시는 24일 독립영화의 집 사업부지(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독립영화협회 관계자,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독립영화의 집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독립영화의 제작·보존·상영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195억 원 등 총사업비 72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3702㎡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3개관)과 후반 제작시설(색보정·음향마스터링), 야외광장,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 결합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독립영화의 집이 완공되면 영화 제작부터 상영까지 원스톱으로 한 공간에서 가능해진다. 시는 지역 영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의 핵심인 영상문화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독립영화의 집은 독립영화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자, 한국 독립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며 "2026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전주가 K-영화의 중심지이자 세계 독립예술영화의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음악·미술 공존' 테라피 공연

전주시립교향악단, 임산부 대상 티켓 신청 접수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은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전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세상에 사랑을 더하다' 공연 티켓 응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연은 음악과 미술을 한 무대에 올려 정서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테라피 공연으로, 선정된 70명의 임산부에게는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뮤직 앤 아트 테라피: 세상에 사랑을 더하다' 공연 티켓 2매가 무료로 제공된다.

오는 3월 1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가족과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임산부와 태아, 가족 구성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유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해지는 다양한 그림과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전주시립예술단 누리집 또는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관련 게시물의 QR 코드 접속을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7일부터 전주시립예술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이번 공연이 관립단체로서는 보기 드문 예술치유 프로그램인 만큼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상에 사랑을 더하다' 공연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마련된 공연"이라며 "음악과 미술 감상을 통해 임산부, 태아, 가족 모두 힐링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립교향악단은 이번 공연에 앞서 오는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목관악기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먼나라 이웃나라' 공연을 선보인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3월 19일까지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노후경유차 600여 대를 폐차할 수 있는 총 16억 원 규모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 등이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확대돼 조기 폐차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전주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일 경우에는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4층)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만든다

전주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안전의식 교육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안전 등 함양 교육에 나섰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친절·안전 등 함양 교육에 나섰다.

시는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 친절 및 안전의식 교육'을 실시한다.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전주지역 전체 운수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서비스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친절 교육은 국민강사교육협회 소속의 유명 스타 강사진이 초청돼 기존과는 차별화된 강의로 운수종사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게 된다.

또한 안전교육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버스공제조합 소속 전문 강사들이 실제 사례 영상을 활용해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한다.

이날 첫날 교육에는 김은주 강사가 '희망을 운전하는 친절한 승무원'을 주제로 역할극 등을 활용해 고객 응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강사는 △교통약자 인식개선 △평소 말의 온도 점검 및 경청의 중요성 △자기 존중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안전 분야 강의를 맡은 김아름 교수와 정대희 강사는 최신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수칙, 위기 대응 및 사고 예방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실제 사고 영상을 공유하며 운수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첫날 교육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참석해 운수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내버스는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매일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운수종사자분들의 친절과 안전이 곧 전주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만큼,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주시내버스 관련 불편 신고는 총 1796건으로, 이 중 불친절 및 난폭운전 신고가 533건(약 30%)을 차지했다. 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향후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금암동 통합청사' 3월 10일 운영 개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1·2동이 오는 3월 10일부터 금암동으로 통합된다.

시는 금암 1·2동 주민센터의 통·폐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10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금암동 통합청사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암 1·2동 통폐합은 시가 추진해 온 행정구역 조정방안 중 하나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최우선으로 두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금암 1동 주민센터를 통합 금암동 주민센터 통합청사로 운영하고, 고령인구가 많은 기존 금암2동 주민들을 위해 금암2동 주민센터에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당일 처리 가능한 민원 업무를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등 통폐합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금암1·2동 통합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이후 지난해 10월부터는 금암1·2동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통합을 위한 제반사항 결정해왔다.

시는 현재 통합청사 운영을 위해 주민 홍보(안내문, 소식지 등) 활동과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합청사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 및 리모델링도 전개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하나로 통합된 행정구역으로 변화의 중심에서 발전하게 될 새로운 금암동의 모습을 기대한다"면서 "새로운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금암동 주민들이 통합행정동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